

농산촌 개발마을 사례별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김종호^{1*} · 전주현² · 이덕재² · 이광희² · 김성일³ · 김통일³

¹CIFOR, ²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³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on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Types of Rural and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Jong Ho Kim^{1*}, Jun Heon Jeon², Dukjae Lee², Kwang Hee Lee²,
Seong Il Kim³ and Tong Il Kim³

¹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Bogor Barat 16115, Indonesia

²Department of Forest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³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촌 체험관광마을별로 마을개발사업의 현황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산촌에 체험관광 도입 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농산촌 체험마을형태인 산촌개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들어간 혼합형 마을의 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마을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혼합형 마을인 신론·도원리는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마을에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측면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체험마을의 형태에서 지역주민은 서비스 교육, 리더십 강의 등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실시된 마을에서 마을의 발전방향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cessary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green tourism in "Mountain Village Project" through the survey of local residents on the recognition of rural and mountain villages about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Direct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executed to each local resident in different types of rural tourism villages such as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the Green agricultural village, the Rural theme village, and mixed type of village between them. It was revealed that local residents in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had a positive reaction to the Project, whereas those in mixed type of village did not notice highly the change by the Project. Residents in the Mountain development village highly satisfied with the Project as improved income sources.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local residents recognised the necessity of social education and they highly wanted to participate in it. Residents in the Green agricultural village also wanted to put an effort to introduce an activity-based program for village development.

Key words : eco-mountain village project, green tourism, rural village tourism,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황폐화된 국토를 복구하는 산림녹화정책에 치중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녹화사업을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산

촌주민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였다(강병수 등, 1999). 산촌은 기본적으로 산림경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목재생산, 수원함양, 자연환경보전, 휴식공간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시대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재와 여가공간의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김종호 등, 1997), 산촌지역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은 국립공원과 같이 관광객 및 휴양객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

*Corresponding author

E-mail: frkimjh@hanmail.net, j.kim@cgiar.org

한 자원이다(이덕재, 2006; Marcouiller, 1998; Fredrick, 1993).

한편 산촌은 동시에 그 안에서 지역주민이 정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수도권외의 과밀한 입구집중에서 오는 폐해와 더불어 농산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동시에 농산촌지역의 소득원 감소와 맞물려 농가 및 산촌가구의 가정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조영숙 등, 2006). 특히 산촌지역은 생산 활동이 불리한 지역으로, 낮은 소득과 열악한 기반시설에서 비롯된 저수준의 생활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심각한 인구과소지역이다(김종호, 2000; 강병수 등, 1999). 이에 대해,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산촌의 이미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꼽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인 산촌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촌종합개발의 당위성은 산촌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항이라 할 수 있다(김종호와 신호중, 1999).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산촌지역에 대한 진흥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산림청은 산림·산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정원 등, 2006; 김종호와 서정원, 2005; 김종호 등, 1997). 그러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단점으로부터 비롯하여 농산촌마을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감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마을주민의 개발사업으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접근법 또한 마을 주민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성민, 2004).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관광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참여는 주로 의사결정과정이나 관광개발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Tosun, 2000; Simmons, 1994; Prentice, 1993). 한편, 마을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조사한 경우도 있다. Lepp (2007)에 의하면, 지역주민은 꾸준히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농산품 시장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는 관광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이다(Brown, 1998; Brohman, 1996). 농산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산촌마을에 체험관광을 도입하는 것은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조사는 체험관광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며,

향후 마을개발사업의 전개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촌생태마을사업에 향후 산촌마을의 개발방향으로 산촌체험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타 부처에서 시행중인 농촌체험 관련마을 지역주민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지 선정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조사를 위한 대상지는 마을별로 비교를 위하여 농산촌 개발마을의 사례별로 선정하였으며,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07년 이후부터는 “산촌생태마을사업”이라 칭함) 수행이 완료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우선 사업시작년도가 각 사업별로 사업기간이 달라 2000년도에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이나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시작된 농촌개발사업 등 사업시작년도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사업완료기간은 모두 2003년도에서 2006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2~3년이 경과되면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사업완료기간이 2003년도에 되어진 지역을 첫째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마을개발사업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선 체험프로그램의 도입가능성이 높고 농촌체험관광 대상지로서의 잠재적 시장이 큰 수도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산촌개발사업은 2003년에 완료된 지역이 경기도에 없어서 강원도 지역을 선정하였다. 만약 경기도,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한다면 농촌관광의 수요배



그림 1. 조사대상 마을 위치.

경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 혼합이 되어 사업의 효과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서, 사업 간 효과를 좀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사업지역의 농산촌관광 배후 수요인구가 같은 경기권과 강원권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림청의 산촌개발마을인 경기도 파주시 객현리와 강원도 횡성군 병지방리,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자채방아마을,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들어간 혼합형마을인 경기도 양평군 신륵·도원리와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들어간 강원도 양양군 탁장사마을 등 비교적 수도권 근접의 6개 마을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

2. 조사 방법

각 농산촌관광 사례대상 마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마을별로 2~3일 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조사대상 마을 들에 대해 연구팀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지역의 지역 리더 1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으로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가구당 1명만을 조사하고, 한 조사대상지역당 최소마을 규모인 평균 30부의 설문지 회수를 목표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마을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사항, 체험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마을개발사업 만족도에 관한 사항, 소득변화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사항, 마을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응답시간은 약 15분~35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작업을 거쳐 기술분석 및 상관분석 등 양적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마을의 마을개발사업 현황

1. 마을개발사업 투자현황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마을개발 관련사업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농산촌 체험관광과 직접 관련된 산촌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외에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그리고 기타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6개 조사대상마을 중 4개 마을에서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다(표 1). ‘1사 1촌 운동’의 항목은 사회적자본의 투자측면에서 추가되었다. 여기서 다른 투자비용에 비하여 산촌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체험마을보다 산촌개발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

각 체험마을형태 중에서 산촌개발마을의 마을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을 살펴보았다(표 2). 먼저 객현리는 산촌개발사업과 정보화마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머루를 이용한 가공상품 및 머루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산촌개발사업으로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산막에 대한 투자가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병지방리의 마을개발사업은 산촌개발사업과 팜스테이가 대표적이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산막이나 팜스테이 등의 숙박시설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농촌체험마을 형태인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은 표 3과 같다. 부래미마을의 경우에는 체험관광과 관련해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그리고 정보화마을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들 수 있다. 체험관광과 관련한 시설, 프로그램, 마케팅의 지원이 다른 조사대상지역에 비해 많이 이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슬로우 푸드 (Slow food) 마을과 관련하여 ‘우렁이 마을’로 지정되어,

표 1. 마을개발 관련사업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관기관	산촌개발마을		녹색농촌	농촌전통	산촌+녹색	산촌+농촌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륵도원	탁장사
산촌개발사업	산림청	1,298	1,200	-	-	1,122	1,400
산림청 소관 기타사업	산림청	1,586	-	-	-	163	-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부	-	-	100	-	200	-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진흥청	-	-	-	200	-	200
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	275	-	250	250	250	-
팜스테이	농협	참여	참여	참여	-	참여	-
기타지원사업	지자체	2,000	-	80	-	1,599	새농촌 500
1사 1촌 운동	기업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계		5,159	1,200	430	450	3,334	2,100

표 2. 산촌개발마을 (객현리, 병지방리)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

마을	마을개발사업명	사업 연도	사업내용
객현리	산촌개발사업	2000~2003	- 마을조성 : 마을안길, 안내시설 - 문화복지시설 : 건강클리닉시설 - 환경정화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 생산기반조성 : 버섯재배시설, 산채재배시설 - 산촌산업개발 : 특산물판매장, 저장창고시설 - 휴양시설 : 농촌관광센터, 산촌휴양시설(산막 등) - 소득원 개발 : 버섯재배, 산채재배
	정보화마을	2004	- 정보센터시설 - 인터넷 설치 - PC 70대 지원(필요시 전부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	2004	- 마을진입로 공사
	1사1촌	2005	- 환경관리공단: 봄에 식목행사
	기타지원사업	2005~2006	- 선택형 맞춤형농정 : 산머루 저장고, 자동화 지원 시설, 산머루 가공 시설 등
	팜스테이	2006	- 팜스테이 지원(2007년부터 홍보 시작)
병지방리	산촌개발사업	2000~2003	- 마을조성 : 상수도, 마을안길, 안내시설 - 문화복지시설 : 산림문화회관, 건강시설, 성황당복원, 다목적광장 - 환경정화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정비 - 생산기반조성 : 버섯재배시설, 산채재배시설 - 산촌산업개발 : 특산물판매장, 저장창고시설 - 휴양시설 : 농촌관광센터, 산촌휴양시설(산막 등) - 소득원 개발 : 버섯재배, 산채재배, 기타사업
	팜스테이	2003	- 1리: 팜스테이 6가구 참여, 거의 민박 - 2리: 팜스테이 없음
	타부처 지원사업	2005	- 횡성군 청소년 수련원 건축 - 어답산 자동차 야영장 조성공사
	1사 1촌	2004~2005	- 1리: 산림항공관리소 원주지소(화단 및 과실수 심기) - 2리: 강원 농협 춘천지점 : 100만원 지원, 풀뽑기 등

표 3. 농촌체험마을 (부래미, 자채방아)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

마을	마을개발사업명	사업 연도	사업내용
부래미	농촌전통 테마마을	2003	- 전통체험시설 2개소(식당, 체험관) - 문화체험시설 2개소(도자기, 농악) - 간판, 생태공원 등
	정보화마을	2004	- 컴퓨터 83(석산 1, 2, 3리, 오성리 1리), 정보화사무실 16대
	팜스테이	2003	
	지자체 지원사업	2004	- 경기도 슬로푸드 마을 : 우렁이 마을 지정
	1사 1촌	2005	- 경기문화재단, 코트라, 삼성경제연구원, 운중초등학교 (체험, 봉사)
	타부처 지원사업	2006	- 농촌종합개발사업 : 5개 마을에 지원 - 석산리 20억 지원 : 숙박동 10실, 강의실 100평, 식당 100평, 관리실, 하수처리장
자채방아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3	- 농업체험시설 (농기구전시장, 도정 체험관) - 문화체험시설 (원두막, 활터) - 간판, 샤워실 등
	정보화마을	2004	- 정보센터시설 - 인터넷 설치 - PC 50 여대 지원
	1사1촌	2005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매결연	2005	- 성지아파트단지
	팜스테이	2006	

그 마케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사 1촌 운동 및 운중초등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교류가 활

성화 되었다. 자채방아마을의 경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과 정보화마을이 대표적인 마을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

표 4. 혼합형 마을 (신론·도원리, 탁장사)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

	마을개발사업명	사업 연도	사업내용
신론·도원	산촌개발사업	2001~2003	- 생활환경정비: 상수도, 하수오수정화, 하천정비, 마을립 조성 - 생산기반조성: 임간수련장, 숲문화체험센터, 산림체험교육장비 - 단기소득사업: 표고재배시설(2동) - 사방댐 1개소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3	- 마을향토방, 국궁체험장 1개소, 주말농장, DVD, 홍보안내관, 컨설팅
	팜스테이	2003	
	정보화마을	2004	- 컴퓨터 70여대, 프린터, 케이블 지원, 정보화센터 및 교육장
	1사1촌	2004	- 삼성카드: 옥수수 선물, 김장행사
	지자체 지원사업	2004 2005 2005	- 농업기술센터 지원 농촌특화사업: 숙박시설 2동, 꽃마차 2대 - 건강클리닉, 가로등, 버스정류장, 목교, 정자, 교량, 물레방아 - 마을휴양숙소시설 2동(군정지원)
	기타지원사업	2005	- 지자체: 맞춤형 농정 사업 5억4천만원 지원 숙박동 11실 (도 40%, 군 40%, 자비 20%)
탁장사	산촌개발사업	1998~2000	- 마을조성: 마을순환도로 확포장 2.4Km -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1동, 주민건강센터 - 환경정화시설: 관정개발 1식 - 휴양시설: 숲속의 집 9동
	농촌전통 테마마을	2003	- 전통체험장: 40평 규모 - 농기구전시관, 활동체험관, 오두막 포함 - 프로그램 컨설팅
	1사1촌	2004	- 삼성화재
	타부처 지원사업	2005	- 새농촌사업

다.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숙박 시설에 대한 지원도 받지 않고 주로 마을 주민들의 주택을 활용한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을 통해 마을고유의 전통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체험사업이 투입된 혼합형 마을의 마을개발사업 시행내용은 표 4와 같다. 먼저 신론도원리의 경우에는 산촌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촌개발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촌관광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를 지원 받았으며, 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통해 프로그램 컨설팅과 같은 농산촌관광 소프트웨어를 지원 받았다. 한편 탁장사 마을은 산촌개발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통해 각각 농산촌관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 받았다. 특히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숲속의 집 9동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촌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신규도로 개설로 인해 마을 계곡을 연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다양한 펜션이 들어섰다.

연구결과

1. 조사응답자의 특성

각 사례대상 마을에 대하여 농산촌관광 지역주민의 마

을개발사업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160부의 설문지가 유효하게 회수되었다. 전체적인 조사 집단을 대상마을별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피설문자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평균연령은 객현리가 42세 정도로 제일 낮았으며, 병지방리가 66세 정도로 제일 높았다. 나머지 4개 마을의 평균연령은 51세부터 61세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력분포 역시 평균연령대가 가장 높은 병지방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과 무학의 비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 높고, 평균연령대가 가장 낮은 객현리에서는 고졸이상의 비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 높았다. 직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농림수축산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채방아마을과 탁장사마을의 경우에는 기타 업종으로 상업/유통업 종사자가 많았다.

2. 마을개발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주민 인식

마을개발사업 시행으로 마을 내의 변화의 정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6). 대체로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마을 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지인 방문증가'를 가장 큰 마을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자리증가'나 '마을인심 좋아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별로 살펴보면, 산촌개발마을인 병지방리는 '일자리증가' 및 '소득향상'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농촌

표 5. 대상마을별 조사대상자 일반 현황.

단위: 명(%)

구분	산촌개발마을		녹색농촌	농촌전통	산촌+녹색	산촌+농촌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론도원	탁장사	
합계	29(100.0)	27(100.0)	19(100.0)	32(100.0)	31(100.0)	22(100.0)	
성별	남	21(72.4)	22(81.5)	10(52.6)	18(60.0)	19(61.3)	12(54.5)
	여	8(27.6)	5(18.5)	9(47.4)	12(40.0)	12(38.7)	10(45.5)
	결측치	0	0	0	2	0	0
연령	50세 이하	21(72.4)	2(7.4)	5(27.8)	9(30.0)	10(32.3)	4(18.2)
	51-60세	8(27.6)	2(7.4)	12(66.7)	14(46.7)	7(22.6)	7(31.8)
	61세 이상	0(0.0)	23(85.2)	1(5.6)	7(23.3)	14(45.2)	11(50.0)
	결측치	0	0	1	2	0	0
고향 여부	고향	19(65.5)	13(48.1)	9(50.0)	17(56.7)	12(38.7)	15(68.2)
	타향	10(34.5)	14(51.9)	9(50.0)	13(43.3)	19(61.3)	7(31.8)
	결측치	0	0	1	2	0	0
학력	무학	1(3.4)	5(18.5)	2(11.1)	2(6.7)	2(6.5)	5(25.0)
	초졸	2(6.9)	14(51.9)	4(22.2)	9(30.0)	9(29.0)	7(35.0)
	중졸	3(10.3)	3(11.1)	4(22.2)	6(20.0)	5(16.1)	4(20.0)
	고졸	18(62.1)	2(7.4)	4(22.2)	9(30.0)	12(38.7)	2(10.0)
	대졸이상	5(17.2)	3(11.1)	4(22.2)	4(13.3)	3(9.7)	2(10.0)
	결측치	0	0	1	2	0	2
직업	농림수축산업	20(69.0)	23(95.8)	13(72.2)	14(46.7)	16(57.1)	10(47.6)
	기타	9(31.0)	1(4.2)	5(27.8)	16(53.3)	12(42.9)	11(52.4)
	결측치	0	3	1	2	3	1

표 6. 대상마을별 지역주민 마을개발사업 결과 인식 및 만족도.

구분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론도원	탁장사	
마을개발 사업 결과인식	마을 환경 개선	3.52 (.63)	3.09 (1.04)	3.69 (.87)	3.57 (1.01)	2.38 (1.15)	3.59 (1.10)
	생활기반 향상	3.69 (.66)	3.45 (1.10)	3.69 (.79)	3.24 (1.02)	2.82 (1.28)	3.48 (.93)
	주민 단결심 향상	3.07 (.70)	3.25 (.85)	3.72 (1.02)	2.86 (.99)	2.30 (1.07)	3.45 (.96)
	주민 소득 향상	3.45 (.78)	2.83 (1.17)	4.00 (.52)	2.86 (1.06)	2.39 (1.13)	3.19 (1.08)
	일자리 증가	3.31 (.93)	2.19 (.93)	3.81 (.83)	2.66 (.94)	2.41 (1.34)	2.43 (.87)
	마을 인심 좋아짐	3.21 (.63)	3.13 (.95)	3.00 (.97)	2.90 (.98)	2.15 (.97)	3.24 (.83)
	외지인 방문 늘어남	4.48 (.74)	3.81 (1.30)	4.38 (.72)	4.03 (.87)	3.68 (1.44)	3.95 (.59)
	전체만족도	3.55 (.83)	3.15 (1.06)	3.47 (.77)	2.97 (.87)	2.43 (1.28)	3.05 (.79)

주: 5점 리커트 척도 활용(1점-매우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전통테마마을인 자채방아마을과 산촌개발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혼합형인 신론·도원리는 대체로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과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는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고, 혼합형 마을인 신론·도원리는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

위의 표 6에서 나타나듯이, 대상마을별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표 7. 마을개발사업 만족과 사업추진결과 인식과의 상관관계.

구분	전반적인 만족도						
	전체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륵도원	탁장사
마을 환경 좋아짐	.404**	.186	.524*	-.157	.400*	.415*	.188
생활기반 향상	.416**	.259	.413	-.058	.541**	.277	.570**
주민 단결심 향상	.416**	.300	.412*	.392	.663**	.143	.475*
주민 소득 향상	.531**	.431*	.550**	.530*	.456*	.636**	.104
일자리 증가	.374**	.419*	.253	.164	.294	.335	.184
마을인심 좋아짐	.340**	.040	.206	.189	.449*	.303	.431
외지인 방문 증가	.234**	.133	.187	.381	.299	.108	.005

**0.01 수준에서 유의, *0.05 수준에서 유의.

표 8. 소득 수준 향상 정도 인식.

단위: 명(%)

구분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륵도원	탁장사	전체
많이 향상되었다	3(10.7)	2(7.4)	9(47.4)	1(3.2)	3(11.1)	0(0.0)	18(11.7)
조금 향상되었다	16(57.1)	10(37.0)	6(31.6)	7(22.6)	5(18.5)	11(50.0)	55(35.7)
변하지 않았다	4(14.3)	13(48.1)	1(5.3)	15(48.4)	12(44.4)	10(45.5)	55(35.7)
감소 되었다	1(3.6)	2(7.4)	3(15.8)	8(25.8)	2(7.4)	1(4.5)	17(11.0)
잘 모르겠다	4(14.3)	0(0.0)	0(0.0)	0(0.0)	5(18.5)	0(0.0)	9(5.8)

산촌개발마을 객현리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은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해 인식이 덜한 혼합형마을인 신륵·도원리는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각 세부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 세부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7).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주민 소득 향상’으로 나타났는데($r=.531$), 이는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마을주민의 소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산촌개발마을 객현리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 뿐만 아니라,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덜한 혼합형마을인 신륵·도원리의 경우($r=.63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자채방아마을은 ‘주민 단결심 향상’ 부분에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높은 상관($r=.6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형마을인 탁장사마을은 ‘생활기반향상’과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r=.57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각 체험마을형태별로 설문에 응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개인 소득의 향상정도를 설문하였다(표 8). 전체적으로 ‘조금 향상되었다’ 항목과 ‘변하지 않았다’ 항목의 비율이 각각 35.7%로 높은 비율을 나

타내는 가운데, ‘전체 만족도’에서 다른 마을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난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는 ‘조금 향상되었다’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의 경우에도 ‘많이 향상되었다’의 비율이 47.4%로 다른 체험마을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향상되었다’도 31.6%를 차지하였다. 반면,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혼합형마을인 신륵·도원리는 ‘변하지 않았다’의 비율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 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지역주민들의 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정도와 교육 참여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마을별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9). 모든 대상지에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9%에 불과했다. 또한 체험마을형태별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개최 시, 피설문자가 주민 교육에 참석할 의향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모든 마을에서 피설문자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피설문자 중 73.7%가 본인이 직접 교육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주민 희망 마을 발전 방안

각 마을 지역주민의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의향을 분석하였다(표 10).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의 경우, 마을 편의시설 개선과 휴양시설 정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

표 9. 마을개발사업 관련 교육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개현리	병지방리	부래미	자채방아	신론도원	탁장사	전체	
교육 필요성 인식	필요	27 (93.10)	21 (80.77)	19 (100.00)	23 (76.67)	24 (80.00)	14 (73.68)	128 (83.66)
	불필요	0 (0.00)	3 (11.54)	0 (0.00)	0 (0.00)	1 (3.33)	2 (10.53)	6 (3.92)
	모르겠음	2 (6.90)	2 (7.69)	0 (0.00)	7 (23.33)	5 (16.67)	3 (15.79)	19 (12.42)
교육 참석 의향	참여	25 (86.21)	18 (69.23)	18 (94.74)	20 (66.67)	17 (60.71)	14 (70.00)	112 (73.68)
	불참여	2 (6.90)	7 (26.92)	1 (5.26)	5 (16.67)	5 (17.86)	2 (10.00)	22 (14.47)
	모르겠음	2 (6.90)	1 (3.85)	0 (0.00)	5 (16.67)	6 (21.43)	4 (20.00)	18 (11.84)

표 10. 향후 마을의 희망 발전방향.

단위: 명(%)

지역주민 전체의견 (복수응답)	희망 발전방향					
	편의시설 개선	기반시설 정비	임특산물 개발	휴양시설 정비	프로그램 개발	기타
개현리	18(62.1)	3(10.3)	1(3.4)	20(69.0)	12(41.4)	1(3.4)
병지방리	11(40.7)	21(77.8)	8(29.6)	6(22.2)	0(0.00)	1(3.7)
부래미 마을	7(36.8)	6(31.6)	5(26.3)	3(21.1)	11(63.2)	1(5.3)
자채방아 마을	11(37.9)	11(37.9)	6(20.7)	15(51.7)	7(24.1)	1(6.9)
신론도원리	14(50.0)	5(17.9)	3(10.7)	6(21.4)	14(50.0)	4(14.3)
탁장사 마을	9(45.0)	8(40.0)	5(25.0)	3(15.0)	8(40.0)	1(5.0)

역리더 역시 물놀이장 확대 및 주차장 등의 방문자 편의 시설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타냄으로서, 마을을 체험관광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 하드웨어의 확충에 많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같은 산촌개발마을이지만, 병지방리의 희망 발전 방향은 지역리더와 지역주민 전체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관광과 관련된 발전수요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의 지리적 여건 상 대도시와 접근성이 불리하고 노인층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 발전방향은 지역주민 의견에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체험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주민전체 의견이 체험관광 발전에 부합되어, 체험관광마을로의 발전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자채방아마을에서는 주민전체 의견 조사 결과, 휴양시설 정비 등 체험관광 관련 하드웨어 부분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산촌개발마을이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투입된 신론·도원리의 경우, 앞서 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만족도와 결과인식은 다른 마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 체험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체험관광마을로의 발전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같은 산촌개발마을이지만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투입된 탁장사 마을의 경우, 체험관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서울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젊은 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관광 관련 사항과 함께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산촌 체험관광마을별로 마을개발사업의 현황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산촌에 체험관광 도입 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사업에 향후 산촌마을의 개발방향으로 산촌체험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타 부처에서 시행중인 농촌체험 관련마을 지역주민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촌개발마을인 개현리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반하여, 혼합형 마을인 신론·도원리는 마을개발사업으로도 거의 모든 면에서 마을에 변화

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마을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객현리와 부래미마을에서 높게 나타나, 사업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마을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의 측면이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을개발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 뿐만 아니라, 마을개발사업에 대해 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던 혼합형마을인 신론·도원리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체험마을 지역주민이 서비스 교육, 리더십 강의 등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마을의 발전방향은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불분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는 휴양시설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신론·도원리의 경우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향후 체험관광 도입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마인드 고취 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개발사업의 효과를 강하게 인식하는 산촌개발마을의 지역주민의 경우,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주민소득향상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체험관광사업이 병행될 경우에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시설위주의 사업이 아닌 마케팅 지원 등 보다 운영서비스 측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마을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채택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는 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 서비스 교육, 리더십 강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연구 결과 나타난 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의식과 참여의향은 향후 체험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마을사업의 투자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산촌개발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투자가 마을조성, 문화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생산기반

조성, 산촌산업개발 등 마을시설 정비와 휴양시설, 소득원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조성된 시설위에 체험프로그램, 교육기회부여, 프로그램 컨설팅 등 체험관련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산촌생태마을에 있어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주민 조직화 시행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각 운영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진흥청마을에서는 사업진행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진행과정에서 주민이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침서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및 그 수행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넷째, 마을별로 특화되고 적절한 형태의 산촌관광 비전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김대식과 구승모(2004)는 관광소득의 요인별 분포특성에 대한 농촌마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체험 프로그램, 토속적 음식, 특성화된 농특산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모두 갖추었을 때만 높은 운영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산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마을사업을 통해 각 마을별 고유하고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의 확보 및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독특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산촌마을개발은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의를 반영하여 체험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마을발전사업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문헌

1. 강병수, 김종호, 오덕성, 최영일. 1999. 자원형 산촌정주권의 연계개발 방향. 산림과학논문집 61: 57-70.
2. 강형기. 2006. 지역발전의 의미와 진정한 발전. 지방행정 1월호: 15-21.
3. 김대식, 구승모. 2004. 관광소득의 요인별 분포특성에 근거한 농촌마을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0(4): 39-44.
4. 김종호, 김규현, 이진규. 1997.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산촌구분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산림과학논문집 55: 105-124.
5. 김종호, 서정원. 2005. 일본의 산촌진흥법과 산촌진흥정책. 한국농촌관광학회 12(2): 173-188.
6. 김종호, 신효중. 1999.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산림휴양연구 3(3-4): 103-113.
7. 김종호. 2000. 농산촌과 도시교류 실태에 관한 연구. 산림휴양연구 4(3): 1-15.
8. 문성민. 2004. 산촌관광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

- 총 16: 179-195.
9. 서정원, 김종호, 전준현, 김의경, 안기완. 2006.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06-11. pp110.
 10. 이덕재. 2006. 조건부 로짓함수를 이용한 경관선호 모델: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5(6): 768-777.
 11. 조영숙, 이덕재, 황대용, 박은식, 고정숙. 2006. 전업겸업 농가의 가정 내 경제문제 인지의 변화.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2): 265-276.
 12. Brohman, J. 1996. New directions for tourism in Third World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48-70.
 13. Brown, D.O. 1998. In search of an appropriate form of tourism for Africa: Lessons from the past. *Tourism Management* 19: 237-245.
 14. Fredrick, M. 1993. Rural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7(2): 215-224.
 15. Lepp, A. 2007.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in Bigodi village, Uganda. *Tourism Management* 28(3): 876-885.
 16. Marcouiller, D.W. 1998. Environmental resources as latent primary factors of production in tourism: the case of forest-based commercial recreation. *Tourism Economics* 4(2): 131-145.
 17. Prentice, R. 1993. Community-driven Tourism Planning and Residents' P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14: 218-227.
 18. Simmons, D. 199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5: 98-108.
 19. Tosun, C. 2000. Limits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Tourism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21: 613-633.
-
- (2007년 9월 18일 접수; 2007년 12월 7일 채택)